

제 179 호

제 2 부활 축일

1976. 4. 25.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부활은 구원의 희망

이 도 마 신부

우리는 지난주일 환희에 찬 알렐루야의 합창과 함께 부활축제를 지냈습니다. 성서서원 경신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되었음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모를때 우리는 부활을 안다고 할수 없을것이고 부활하신 주의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바로로 사도께서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또한 죽음으로 부터 부활하셨으므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되었고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던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참된 인간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인류를 하느님께로 초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해방을 위해 주어진 율법을 이상화한 학자들과 유태교 지도자들의 권리 탐욕과 자신의 체면에 얽매인 빌라도의 비굴함등으로 나타나는 악의세력은 마침내 예수님을 못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었기에 아버지 성부의 뜻과 부패된 현실과의 타협을 놓고서 선택의 갈등속에 괴로워 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앞에 떨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5장34절에서 전해준과 같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하시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의극치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자로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단순히 흠으로될 육신의 세포가 다시 재생됨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수난하고 죽으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의 사랑을 받았다는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당신 아들을 우리와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할때 주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죽도록 사랑한 짝사랑의 죽음이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와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와같이 이세상에 살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과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것을 믿습니다.

(2면으로 계속)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부활 2주일 * (기도서 P. 283)

알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날입니다. 나자렛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날입니다. 이 믿음이 죄악과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의 가족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이 미사 성체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4장32-35절, P.273)

-신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우러납니다. 에루살렘의 초대교회 신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교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 곧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5장 1-6절, P.549)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이상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인 이상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 (요한 20장 19-31절, P.259)

-판일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

부활날 저녁, 열 제자는 살아나신 주님을 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못 믿겠다고 고집 세우던 토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야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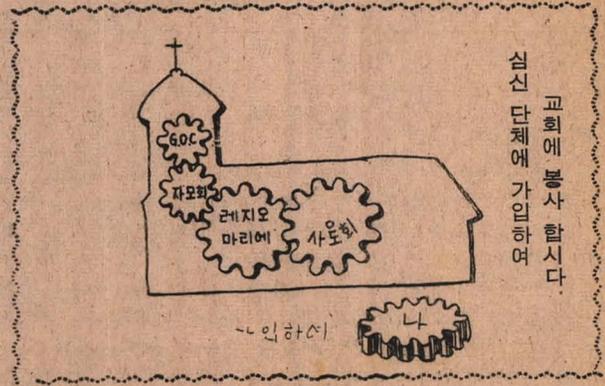
□영성체 후 묵상

믿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갓난아기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마음, 시련과 의심이 닥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움켜 쥐고 있는 신앙, 눈으로 못 보고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면서 고백하는 모험,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믿음은 인생을 좌우하는 결단이며, 그 결단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을 내리십니다.

고통 중에 계시는 문신부님과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순정이 산책



◆부활 메시지◆

부활 축일을 맞이 하여 (1)

지 학 순 주 교

(천주교 원주교구장)

고달팠던 40일 봉제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화창한 봄날과 함께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부활축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재를 지키심과 마침내에는 당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을 묵상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재를 지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맞는 준비를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주성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셔야 할 아무 필요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겸손되게 이렇게 재를 지키심으로 당신을 낮추시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시는 거룩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심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고귀하신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남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면 이와같이 겸손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하느님처럼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자만자축이 큰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겸손한 봉사가 큰 일을 하는것입니다.

큰 수고없이 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큰수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배고프셨고 갖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마태 4. 1-11) 그러나 오직 성부의 뜻만을 채우시고, 또 인류를 치참한 고통에서 구하시고, 모든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구축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에게 가까운 자들의 구축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눈물나는 노력없이 는 구축사업이 이루어 지지는 않

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년간에 복음전파사업을 마치신후에 인류구속 사업을 완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당신을 제물로 내바치사 무수한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갖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백성에게 진리와 사랑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을 인생의 길고에서 구하셨으며 당시 소위 권력자들이요, 위정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규탄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권력자들의 경고와 협박에 굴복하여 그들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규탄하기를 끝냈고 또 백성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가르쳐 당신에게로 끌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없이 불의를 규탄하였고 또 무지하여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하여 소위 원로들의 불의한 행위를 규탄하고 배척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시다가 악한 권력자의 무리에 의해 제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그레시아」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유대인」이나 「그레시아」인이나 할것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고린토 1. 23-24) 의(義)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현재의 권력에 패배되신 그리스도의 업적이 현세적인 지혜와 안일을 찾는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찬송에서 끝말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고린토 2, 6-7) - (다음 호에 계속)

(1면에서 계속)

모든 생명을 영원히 소멸시키던 그 죽음의 위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린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에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있느냐?”(고린토전서 15장 55절)고 악의 두목인 죽음을 비웃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지고 골고타를 오르시는 예수님처럼 고통중에 있으나 그분과 같이 부활할 희망속에 구원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이희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

신자는 구원의 희망속에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루 하루의 생활은 바로 나의 부활의세를 키우며 하느님나라가 임하시기를 재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뇌의 십자가에 짓눌려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찬서리에 말라버리는 한포기의 풀이 아님을 알기에 슬픔중에 웃을 수 있고 어려움중에서도 이웃을 도울수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희망의 촛불로 나자신을 태움으로써 어두움을 해치고 하느님나라를 맞이해야겠습니다.

(교산 천주교회 주임 신부)

주한 교황 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

전주 교구 공식 방문 (5월 6~9일)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잔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행사
 1. 교구청 축성식 (6일 오전 10시반 교구청)
 2. 공식미사 및 환영식 (9일 오전 10시, 중앙성당)
 3. 누갈다 묘지 참배 (9일 오후 2시, 증암산 누갈다 묘소)
- 본당 및 기관 방문 일정
 - 6일 (목) - 남원성당, 광한루 (관광), 성체 수녀원
 - 7일 (금) - 가톨릭센터, 여학생관, 전주 성모병원, 전동성당, 성심학교, 해성학교
순정이, 성 바오로 서원
 - 8일 (토) - 금산사 (관광), 정읍성당, 고창성당, 고창 동혜원, 둔율동 성당, 중동성당, 창인동 성당, 이리 성모의원

사제 3분, 부제 12분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품식에 많이 참석하시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품 - 문규현 (중앙), 김병환 (수류), 이종원 (덕진)
- 부제품 - 전대복 (삼례), 왕수해 (김제), 나궁렬 (월명동), 김진석 (장계), 김윤섭 (합열), 한기호 (서학동), 성태수 (둔율동), 소순형 (전동), 김태윤 (중앙), 김창수 (둔율동), 이순성 (전동), 김준호 (김제)
- 시종직 - 현유복 (서학동), 범영배 (전동), 유종환 (김제), 정태현 (부안), 김윤태 (서울·옥수동), 강덕수 (중앙), 조정오 (삼례)
- 독서직 - 오금석 (김제), 김기수 (둔율동), 송영환 (수류), 안철문 (북자), 김성진 (서학동)

문정현 신부님께 보내는 헌금 누계 423,801원

노송동 이마리아 (3천원), 기엘리사벳 (2천원), 박수산나 (2천원), 둔율동 성모회 (2천원), 중앙 익명 (천원), 이순애 (5천원), 오종문 (2천원), 삼례 최방지거 (5천원), 교구 수녀연합회 (13,000원), 익명 (27,000원) 익명 (5천원), 김후상신부 (5천원),

익산 나환자촌 공소등기 '성금, 감사합니다'

성 바오로 서원에 비치되어 있는 불우 이웃돕기 상자에서 5,115원, 전매청 교우 일동 30,000원

아 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 어른들의 보살피심으로 주님의 제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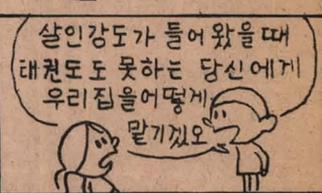
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하느님 백성의 봉사자로서 생활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품식	일시	1976년 5월 3일 (월) 오전 10시
	장소	전주 중앙 성당
	주례	김 아우구스띠누스 (제덕) 주교님
첫미사	이종원	5월 5일 (수) 오전 10시 덕진성당
	김병환	" " 오전 10시 30분 수류성당
	문규현	" " 오전 10시 중앙성당

(※ 안내장은 별도로 안내를 양지해주시시오) 서품자 일동 드림

요심이 (143)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싶어요 자력이있나 시험 봅시다



살인강도가 들어왔을 때 태권도도 못하는 당신에게 우리 집을 어떻게 맡기겠소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0 1 3
김원준 (야고버)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연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영희 (다두)
①전주시 전동 성당 골목 (전화) ⑧ 4 6 6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 온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전주지점 전동지점 ②2143
다가 " ④342
금암 " ③5614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동암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할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씨관집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최병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③ 6691 (교환85년)
自宅 ③ 5418

제 26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서품 및 서임식 (중앙성당에서-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5월 2일 (일) 오전 10시-독서적 및 시중지 수여식, 부제 신발 예식, 부제 서품식(이종원)
5월 3일 (월) 오전 10시-부제 (12명) 및 사제 (3명)서품식
2. 가톨릭 방송 (25일 밤 9시-9시 15분, 연사 장익신부, 주제: 직업에 관해서, 기독교방송)
매일밤 11시10분-12시, 서해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게-사색의 오솔길" 연사 범석규 신부
3. 4지구 중·고등 학생 연합회 신규 임원 교체회의(오늘 오후 3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홍

1.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1시
2. 고등부 학생회 릴레이: 24일 학생미사후
3.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5시반, 10시), 오후 8시) 5월 1일부터
토요일 아동미사(5시), 특전미사(6시반), 평일미사(오전 5시반, 오후 8시)
4. 어린이 주일학교 봄소풍: 5월 2일 오전 9시 (공무원아파트 뒷산) ◎본당에서 집합하여 출발합니다.
5. 성목요일(만찬미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21,380원
6.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 43,39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형

1. 재속형제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2. 사도회 및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일
3. 본당신부 가정방문: 남노송동 4월 28~29일 (구역장, 반장참석)
4. 성당신축헌금: 서독 간호원 박옥희(수산나) 양 94,980원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당의자 헌금: 김바오로(5천원), 황시몬(3천원), 정대례사(2천원), 누제 1,648,330원
- ◎ 봄 판공성사를 못보신 교우는 미사전. 후에 보십시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상임위원회: 공식미사 후
2. 부녀회 릴레이, 학생회 특별회: 공식미사 후
3. 사제서품: 5월 3일 중앙천주교회, 첫미사: 5일 덕진천주교회 ◎구역회장, 공소회장, 반장님께서는 본당에서 준비한 축하 예물 봉투를 교우님들께 전해주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10시, 오후 3시, 8시), 평일(월: 어머니미사) 오전 10시, (화-토) 오후 8시)
5. 애령회: 성금 4,950원 누제 40,860원
6. 불우어웃돕기 헌금: 23,47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로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

서바랍니다.

2. 반회합: 8시 가정방문, 8시반 회합
27일(화) 1반 전 야고버찌때, 이 요셉반장
28일(수) 2반 이 가다리나씨때 김 발도로메오반장
29일(목) 3반 김 바올라씨때 신 발바라 반장
30일(금) 4반 유 루시아씨때 봉 수산나반장
3. 미사시간 변경 (5월 1일부터): 주일-오전 5시반, 10시 오후 8시, 평일-(월)아침 5시반, (화-금) 오후 8시, 주일학교(토) 오후 3시-4시, 중·고등학생교리(토) 5시-6시
4. ☆축☆ 4월 17일(토) 42명(유아포함)이 세례를 받았읍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기도 바랍니다.
5. 김상호(요셉) 형제가 미사주 8명(1년분) 5,600원을 봉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 부활 합동 감사미사 봉헌: 76,600원
7. 불우 이웃돕기: 성미 5말, 헌금 3,3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길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2.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공식미사후 ◎조합원 전원 참석바랍니다.
3. 5분교리: 10시 미사후
4. 어린이 교리: 오늘 오후 2시. 부모님의 협조바랍니다
5.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 중·고등학생회(2,000원)
6. 의산 나한자선 공소 헌금: 익명(1,000원)
☆축 결혼☆ 25일 11시반 가톨릭센터 김용환(토마스)군 김양순(세레나)양 30일 1시 최길선(레오)군, 한순례(모카니)양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불섭
사도 회장 양윤모

1. 클라라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예비신자 신청안내: 사무실에서 접수
3. 주일학교 어린이미사: 오후 2시 중·고등학생 미사: 오전 9시
4. 다음주일 저녁 어린이 성모의 밤 준비물: 목수, 초, 꽃, 미사포, 어린이 미사책
5. 성당대지 헌금: 4월말로 마감.
6. 신용협동조합 소식: 1)전화시설 ③8977 ②4530 2) 폐품수집 저축제도 실시 ◎ 조합원의 협조바랍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진수선정	창계류인음 준계 학생회 체육대회	57,700원 원 원 원	제 3 지구	주현동	아치에스 행사	103,870원
				창인동	아치에스 행사	133,095원	
				황등	각 신심단체 간부 모임	17,665원	
제 2 지구	대문울동충합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짧은미사 꾸리아 회합, 유아영세 까리따스회 총회 구역장회의, 학생회 및 교리 석동 공소 부인회 창립총회	12,540원 148,890원 66,595원 40,280원 43,98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재속 형제회 월례회 사도회 상임 위원회, 부녀회 반 회합에 적극 참여 합시다	177,565원 66,615원 44,420원 38,180원
				덕진동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42,690원	
				서학동	클라라 형제회	215,515원	
				전동			
제 3 지구	고금여삼	각공소의 불우이웃돕기 각분과 위원회 월례회 보미사반 12명 조직 연령회 월례회	29,640원 37,700원 31,175원 33,22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매일저녁 토사리오 기도 실시 청년회 주최 배구대회(부활절)마침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신우회, 성모회 월례회 유아 세례, 마사시간변경	23,700원 27,005원 31,980원 26,835원 17,835원